

시몬스, '착한 침대'로 환아지원 확대... 6억기부 성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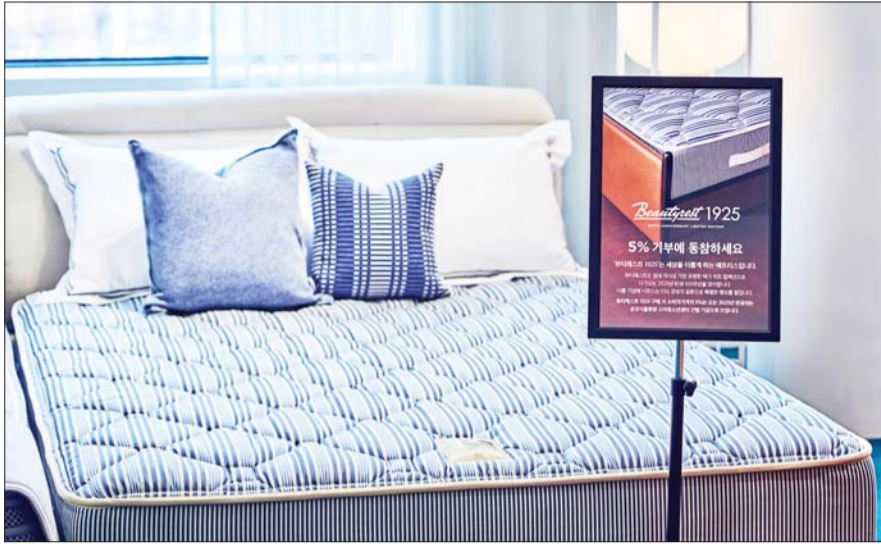
'뷰티레스트 1925' 3000개 넘게 팔려 판매 호조에 한정 운영 앞당겨 종료 삼성서울병원 센터리모델링에 투입 소아청소년센터 지난해 5월 새단장

후속 모델은 '에디슨 슈퍼싱글' 677만원 구매 때 33만8500원 적립 소아암·중증 희귀난치성 치료 활용

시몬스가 '착한 침대'로도 불리는 ESG 침대 두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몬스의 침대 모델 '뷰티레스트(Beautyrest)' 1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한정판 매트리스 '뷰티레스트 1925'에서 시작해 같은 뷰티레스트 라인업 가운데 꾸준히 팔리고 있는 또다른 제품인 '에디슨 슈퍼싱글(SS)'로 이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ESG 경영 행보가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시몬스에 따르면 첫 ESG 침대인



시몬스의 '착한 침대' 1호 뷰티레스트 1925.

뷰티레스트 1925는 프로젝트 진행 기간인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000개 가 넘게 팔렸다. 이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만 6억원이 훌쩍 넘는다. 침대 이름에 붙은 숫자 '1925'는 뷰티레스트 컬렉션의 탄생 연도를 의미한다. 뷰티레스트 1925는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대로 다양하

다. 고객이 침대를 사면 가격에 따라 대당 13만8000~29만8000원이 자동으로 기부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모인 6억원 가량의 기부금은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청소년센터 리모델링 기금으로 쓰였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는 지난해 5월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다. 새 단장한 센터의

완공 시기는 뷰티레스트 브랜드를 출시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시몬스는 당초엔 뷰티레스트 1925를 지난해까지 3년간 한정 판매할 0계획이었다. 하지만 착한 침대의 취지에 공감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예상보다 빠르게 팔려나가 당초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겨 끝냈다.

시몬스 침대의 두번째 프로젝트는 뷰티레스트 중에서도 자녀 침대로 인기가 높은 에디슨 슈퍼싱글로 이어졌다. 이 제품은 소비자가격이 677만원으로 뷰티레스트 1925보다 높다.

시몬스 관계자는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금액이 달라지는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소비자가 기준으로 대당 5%, 금액으로는 33만8500원이 자동으로 기부된다"면서 "모인 기부금은 향후 삼성서울병원 소아암 및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소아청소년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몬스는 지난해부터 매트리스 제조사

포스코 강선에 바나듐(Vanadium) 소재를 적용한 포켓스프링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침대업계에선 최초 시도다. 항공 산업에서 두루 쓰이는 바나듐은 강철의 강도, 합금 강도 그리고 온도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등 유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고압과 고온 등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몬스의 포켓스프링은 7회전 항아리 형태로 돼 있어 신체 곡선을 빈틈없이 골고루 받쳐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에디슨 슈퍼싱글 침대는 기능이 다른 세 종류의 포켓스프링을 배열해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를 든든히 지지하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한국표준협회 '라돈·도론 안전제품 인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친환경 인증',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 생산, UL 솔루션 'UL 그린가드 골드 인증' 등을 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벤처기업 경기실적 106.9 '역대 최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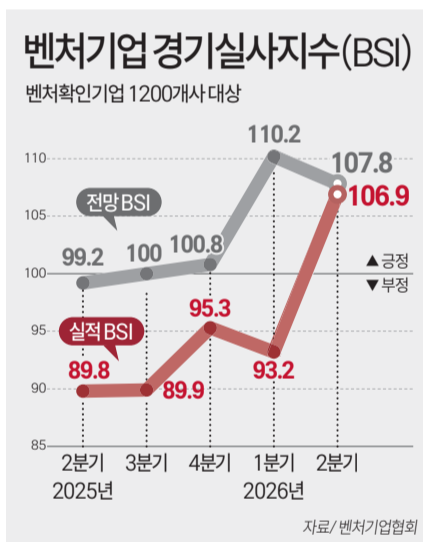
벤처기업협, 경기전망 BSI 조사 2분기 실적 BSI 106.9 기록 제조업·서비스업 모두 개선

올해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가 106.9를 기록하며 2024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107.8로 전분기의 110.2보다 주춤했지만 기준치인 100을 상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벤처확인기업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6년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BSI)' 조사 결과를 29일 내놨다.

2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적지수는 106.9로 전 분기의 93.2보다 13.7포인트(p) 급등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벤처기업의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2분기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실적지수는 110.6으로 전 분기 대비 19.3p 급등하며 3분기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음식료·섬유·비금속·기타제조(119.8)는 전 분기 대비 28.3p 급등했다. 통신기기·방송기기(101.4)와 기계·자

동차·금속(100.5)도 각각 19.8p, 17.4p 상승했다. 서비스업 경기실적지수도 101으로 전 분기 대비 4.7p 상승하며 기준치(100)를 회복했다.

기업경기 개선 주요 요인으로는 '내수 판매 호전(92.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응답률은 전 분기(84.1%) 대비 8.1%p 상승해 내수 회복 중심의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났다. 반면, '기술경쟁력 강화(4.9%)'는 전 분기(19.5%) 대비 14.6%p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기 악화 요인으로는 '내수판매 부진(87.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상승(19.9%)'과 '인건비 상승(5.9%)'이 전 분기 대비 각각 1.5%p, 0.6%p 늘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했던 전망 BSI도 3분기에 하락으로 돌아섰지만 기준치를 웃돌며 벤처기업들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이어졌다. /김승호 기자

대중기협력재단, 농촌 식료품 사각지대 지원

정선·청양·순창 등 7개 군 우선 대상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선, 청양, 순창, 장수, 신안, 영양, 남해지역이 1차 대상으로, NH투자증권이 출연한 10억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7억원을 우선 활용한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하는 7개 군에는 각각 1억 원씩 지원한다. 각 군은 지방정부 자체 재원도 함께 활용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동형, 주문배달형, 혼합형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순창군·영양군·정선군은 냉장·냉동 탭차가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장터 방식으로 진행한다. 남해군은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주문을 접수하고, 취약계층의 집 앞이나 경로당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주문배달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안군·장수군·청양군은 이동식 차량 판매와 사전 주문 물품 개별 배송을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을 택했다.

각 군은 차량 구입·개조, 운영 준비, 주민 대상 사전 홍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내 식료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기자

장애인기업 17만개 돌파... 소상공인 92%

중기부, '2024년 기준 실태조사' 종사자·매출액·영업익도 늘어

장애인기업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은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은 금융, 세제, 판로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장애인기업 숫자는 17만5176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6만466개, 2023년 17만4344개에서 3년째 늘었다.

장애인기업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체 종사자 수는 58만6595명(1.4% ↑),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70조 1830억원(0.8% ↑), 총 영업이익은 6조

6316억원(1.5% ↑)으로 전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16만1270개사로 전체의 92.1%를, 중소기업이 1만 3906개사로 7.9%를 각각 차지했다.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국가데이터터치의 기업통계등록부와 기업생명행정통계자료를 연계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승호 기자

기부 K-바이오 벤처해의 진출

서울대병원·신한금융그룹과 맞손

기술보증기금이 서울대병원,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나갈 K-바이오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기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서울대병원, 신한금융그룹과 케이(K)-바이오 글로벌 혁신포럼'을 공동으로 열고 '글로벌 K-바이오 벤처기업 공동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발맞춰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 유에스에이(BIO USA)' 개최 일정에 맞춰 진행돼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승호 기자



(왼쪽에서 3번째부터) IPARK 현대산업개발 박희운 개발본부장, KCC 백창기 부사장 등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KCC, IPARK 컬러 아이덴티티 구축

IPARK 현대산업개발과 업무협약 체결 컬러 매뉴얼·전용 컬러북 공동 개발

KCC가 IPARK 현대산업개발과 'IPARK 브랜드 컬러 아이덴티티 구축 및 컬러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KCC에 따르면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의무환경 특화 컬러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컬러 가이드 구축 ▲브랜드 전용 컬러 북 제작 및 운영 ▲현장 적용 기술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HDC그룹이 창립 50주년

을 맞아 추진 중인 아이파크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IPARK 현대산업개발은 브랜드를 전면 리뉴얼하며 IPARK를 주력 브랜드에서 고객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한 바 있다.

KCC는 건축용 도료와 컬러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신규 컬러를 개발하고, 컬러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환경에서도 동일한 품질과 색감으로 실제 건축물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